

# 한명이 7년간 무려 4700개 '왜곡 댓글'

### 네이버 댓글 작성자 이력 공개로 드러난 5·18 왜곡·편향 보도

#### 네티즌 공감 댓글 11만건 퍼나르면서 폭발적인 왜곡 재생산 불러 '5·18 폭동' 등 2156개 단 악플러도... 지역민 "강경 대응 나서야"

5·18 기념재단은 지난 2015년 10월 19일, 5·18민중항쟁 당시 복면을 쓰고 군용 지프(Jeep)에 올라타 도심을 순찰중인 시민군을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주장한 지만원씨를 5·18왜곡 혐의로 고소했다.

이 때 'h177\*\*\*\*'이라는 누리꾼은 이같은 기사에 "고소·고발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반드시 북괴특수군이 저지른 광주학살행위를 대한민국 국군인 공수부대에 뒤집어 씌운 수지스런 반역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누리꾼은 지난해 3월 12일 올린 'DJ, 5·18때 북에 특수군 요청'이라고 주장한 탈북소설가를 고소한다는 기사에도 "5·18 무장반란 폭동은...북괴특수군 침투해서 5·18 사태 일으켰다는 팩트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으며...북괴침투 팩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원천봉쇄하며 필사적으로 막고있다"는 댓글을 썼다.

이 누리꾼은 수백개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다.

네이버가 댓글 작성자의 과거 이력 전체를 공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반복적으로 비방글을 달고 있는 악플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광주일보가 인터넷에 게재된 5·18 주요 기사의 댓글 이력을 따라가봤더니 수백수천 건씩 왜곡·편향·비방 댓글을 써온 5·18 악플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5·18 주요 기사를 찾아가면서 올린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비방 댓글은 막무가내로 퍼날라졌다.

◇7년간 4700여개 댓글 달며 5·18 왜곡·편향하는데... '닉네임' a6m2\*\*\*\* (호성성님)를 쓰는 누리꾼은 지난해 12월, 5·18과 무관한 국내 브랜드 순위를 알리는

기사에 느닷없이 "5·18때 폭도새끼들이... 흥어폭도새끼들은 냄새나는 느낌마 흥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

이 누리꾼은 '20만원 삭스핀 오전을 즐겼다'는 전두환 관련 기사에도 "흥어새끼들, 전 장관님 진지도 못드시게 발광이네 카야 땀"이라고 혐오 댓글을 달았고 '인혁당 피해자 과다배상금 반환' 판결 기사에도 "5·18 배상금도 전역 몰수하고 삼청교 육대에 도로 잡아넣어라"고 올렸다.

해당 누리꾼의 댓글을 추적해보니 지난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5·18 혐오 댓글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누리꾼이 작성한 댓글 옆의 회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그 작성자가 지난 10여년간 쓴 댓글이 모두 드러났다. 4787개. 댓글 대부분이 전라도를 '흥어'라고 비하하거나 편향하는 내용이다. 다른사람 댓글에 다는 답글까지 포함하면 무려 8년이 넘는 기간에 5000개가 넘는 댓글을 올렸다. 매일 1~2개씩, 1년에 600개의 전라도 혐오·비방·왜곡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편향 댓글에 '공감'한다는 아이콘을 누른 건수도 11만 건이 넘었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나 5·18 기념재단, 광주시 등은 7년 전부터 왜곡·편향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해당 누리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댓글 공개로 드러난 의도적인 5·18 악플러들 추적...네이버가 뉴스 댓글 작성자의 작성 이력을 전면 공개하면서 의도적인 5·18 악플러들의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hwj\*\*\*\*'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지난 2012년부터 무려 2156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5·18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정치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 기사에도 "5·18 폭동 세

### 뉴스 댓글모음

**호성성님**  
a6m2\*\*\*\* 2008.10.03부터 활동

현재 댓글	현재 답글	받은 공감
4,787	313	111,011

5.18 배상금도 전역 몰수하고 삼청교육대에 도로 잡아넣어라  
법정 "인혁당 피해자 과다배상금 반환" 첫 판결 댓글 더보기 >

댓글 26

2013.10.24. 08:39  
북괴군 무혈입성 시켜주고 미군 장군 잡아다 김일성에게 바친 흥어들에게는 아워온 뉴스군요  
인혁당에 의해 희생된 기사입니다.  
댓글 더보기 >

댓글 3

2013.10.24. 09:19  
답글 남세나는 흥어새끼들이 북괴군 무혈입성시키고 미육군 단 소장을 잡아다 바친건 팩트다. 흥어새끼들중 극소수가 국군에 동조했는지 대부분은 북괴에 부역하고 전쟁이 끝나고도 탈조선 간첩일 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부오까지 몰려오고 죽 걸리는 이런 흥어 새끼들부터 조치가 나라이 제대로 선다. 상소리는 흥어년놈들의 가정교육의 문제고 못배운 흥어새끼들은 처벌 좀 조용히 해라.

댓글 3

지난 2013년 1월부터 네이버 주요 기사를 따라다니며 무려 4787개의 댓글(위)을 작성한 악플러는 5·18과 전남 지역민들을 '흥어'라고 비하하고 편향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다. <네이버 댓글 캡처>

일호 촛불 폭동 전부, 뒤에 북한이 있다"고 올리는가 하면, 한국유치원총연맹 관련,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기사에도 "5·18 유공자도 공개하자", "1인가구들로 혼밥 일상화" 됐다는 기사에도 "5·18도 독방에 문재양 혼밥 혼술"이라고 올리는 등 의도적으로 5·18을 왜곡, 편향했다.

'rock\*\*\*\*' (초코생크림)의 닉네임의 네티즌도 지난 2016년부터 750여개의 댓글을 썼는데, '광주정신'을 '폭동정신'으로, 5·18을 '무력으로 경찰죽인 폭동'이라고 멋대로 작성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네이버의 댓글 공개로 5·18 왜곡 편향 댓글 작성자에 대한 실태가 확인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 이용자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일부 댓글 악플



1980년 5월 25일~27일, 군용 지프를 타고 광주 도심 순찰활동 중인 5·18 시민군 모습. 지만원은 이들을 북한군 특수군인 일명 '광수'로 왜곡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 동구 상무관에 놓인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관. 악플러들은 이 사진도 '흥어' 등으로 이름붙여 비하하며 퍼날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러의 5·18 왜곡·비방 시도를 막는 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5·18 왜곡 방지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계속 되는 5·18 왜곡과 편향을 멈추게 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무 06:22 | 달뜨기 09:43  
해진 18:52 | 달질 00:00

꽃비람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7/18	보성	맑음	5/16
목포	맑음	7/13	순천	맑음	7/18
여수	맑음	8/15	영광	맑음	4/15
나주	맑음	5/17	진도	맑음	7/15
완도	맑음	8/16	전주	맑음	6/17
구례	맑음	5/19	군산	맑음	4/14
강진	맑음	7/17	남원	맑음	5/17
장성	맑음	6/17	흑산도	맑음	6/12
해남	맑음	5/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북)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남)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서부	안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0.5~1.5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46	22:53	05:37	17:36
여수	06:09	18:17	00:12	12:08

◇주간 날씨

31(화)	4/1(수)	2(목)	3(금)	4(금)	5(토)	6(일)
7/20	8/17	5/18	5/19	6/19	5/18	7/18

## 코로나19 비상 속 광주 서부경찰 간부가 음주음전

광주지역 경찰 간부가 음주음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관 개개인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지 일주일도 못된데다, 경찰이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뇌부의 영(令)이 안 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부경찰 A(47) 경감은 지난 28일 새벽 4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A 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

다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는데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45%로, 도로 시설물을 들어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직접 5개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복귀 지침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할 말 없게 됐다는 분위기가.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고액 알바 미끼 코로나발 보이콧싱 기승

### 광주 올들어 2개월간 128건 유명 정치인 사칭 문자 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따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노린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보이콧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유명 정치인을 사칭한 문자도 발송되고 있

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개월 간 발생한 보이콧싱 범죄는 128건으로, 최근 3년(2017~2019) 평균 보이콧싱 범죄(257건)의 49.8%에 이른다. 올 들어 보이콧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 18억3000만원에 달하고 코로나19 발(發) 경기침체로 인한 구직난을 틈타 '고액알바'로 속여 보이콧싱에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건당 10만~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 보이콧싱 전담책 역할을 한 7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외 보건당국, 확진자 등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감염자 경로 등을 가장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토록 한 뒤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유명 정치인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이콧싱도 등장, 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이 직접 '계 이름의 전화번호, SNS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시면 절대 응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수거책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며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다"며 "고수의 보장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이웃집에 오물 투척 혐의 20대 무죄 선고...진범은?

○·법원이 이웃집에 썩은 가지와 달걀 등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다시 오물 투척한 범인 색출에 나서야할 처지. ○·2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해 7월 18일 밤과 다음날 오전,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이웃집 주택 마당과 계단으로 썩은 가지와 달걀을 던진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이 제출한 CCTV영상의 경우 A씨가 나타났다 사라진 지 3초 뒤 조그만 물체가 이웃집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A씨가 던진 것인지, 썩은 가지나 달걀인지 확인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으로, 수사기관은 오물투척범 검거전략을 다시 짜야할 형편.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공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